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이은숙¹ · 강희순²

¹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Lee, Eunsook¹ · Kang, Heesun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s by gender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 survey collected responses from 469 university students in three regions.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χ^2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While male students' scores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ual assault recognition were lower than female students', their scores on gender role stereotype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were higher. Female students'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however, their scores on sexual violence perpetrations were lower than male students'. Sexual violence victims and perpetrations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exual assault recogni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i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violence perpetrations experience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in male student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violence victims and inflictions experiences and sexual assertiveness in female students.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differentiated programs for preventing or arbitrating sexual violence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by gender because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level of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s.

Key Words: Sexual violence, Gender rol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의 성개방 풍조의 급격한 유입으로, 성에 관한 사회현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과히 “성혁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개방과 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중들의 성의식 태도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성 개방화 추세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대학생들

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생의 성행동을 조사한 결과(Chae & Jung, 2004)에서도 남학생의 75.9%, 여학생의 30.7%가 혼전 성경험이 있었고, 남학생의 15.7%, 여학생의 73.4%가 성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성경험률과 성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주로 정신건강, 성격, 학업과 진로 및 가족간의 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약 70%정도가 이성교제와 얽혀있을 정도로 이성문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

주요어: 성폭력, 성역할, 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Heesun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540-950, Korea
Tel: +82-61-750-3885 Fax: +82-61-750-3169 E-mail: ganghs7205@hanmail.net

투고일(date received): 2014년 4월 1일 심사완료일(data of review completion): 2014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date accepted): 2014년 5월 28일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중 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부분인 실정이다(Yoo & Park, 2004).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성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관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데이트 상황에서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성적 갈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낙,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Ahn, 2006; Jang & Cho, 2001; Yoo & Park, 2004).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의 현황을 살펴본 연구(Back, 2006)에서도 가해경험은 58.9%, 피해경험은 63.9%,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49.8%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경우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보고하였고(Lee, 2007), 약물복용, 자살시도,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 개인의 삶을 파괴화시키는 것은 물론 결혼생활에의 부적응, 가족간의 관계손상 등 사회문제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상해, 임신, 성병감염 등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Luthra, 2006; Silverman, 2001). 따라서 본격적으로 데이트 행동에 착수하는 시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에게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증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과 성폭력 행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데이트 성폭력 연구들은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이성교제 시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Back, 2006; Jang & Cho, 2001; Koh, 2006; Lee, 2007; Lee & Lee, 2005; Nam, 2003; Park & Song, 2012).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Koh, 2006; Lee & Lee, 2005; Oh, Kang, & Kim, 2010; Shim, Lee, & Oh, 2012), 성적 자기주장성(Kim, 2006; Kim, Kang, & Jeong, 2012; Lee & Lee, 2005; Park & Song, 2012), 성폭력 인식도(Nam, 2003; Shim et al., 2012)와 성폭력 허용도(Jang & Cho, 2001; Jang & Lee, 2011; Lee, 2007; Nam, 2003; Park, 2007) 등의 성관련 심리적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데이트 성폭력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들 요인을 모두 한 번에 비교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 경험중 피해경험(Chae & Jung, 2004; Jang & Cho, 2001; Lee & Kang, 2010)과 가해경험(Kang & Lee, 2010; Nam, 2003)을 각기 연구하였고, 동일 대상에게 피해와 가해 경험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Back, 2006; Lee, 2007; Lee & Lee, 2005)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대학생의 성의식,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간 차이를 확인하였고(Chae & Jung, 2004; Oh, Kang, & Kim, 2010; Sohn & Chun, 2005), 데이트 성폭력에서도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Back, 2006; Jang & Cho, 2001; Kim & Kim, 1999; Lee, 2007; Lee & Kang, 2010) 선행연구 결과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과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을 통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성관련 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인격을 형성하여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좋은 경험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조절하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남녀 성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의 성별 차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성폭력의 위험군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성 건강교육 및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 3) 데이트 성폭력 경험과 성 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을 파악하고, 데이트 성폭력 경험과 성 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집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였다. 각 대학 학생상담지원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의뢰하였다. 연구 주제상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담당자는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

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었고 설명문과 동의서에 기재하여 연구대상자가 읽고 난 후 자유로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 중에서 이성간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연구시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표본의 크기는 400 정도이므로(Ryu, 2006) 탈락률을 감안하여 4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 기재된 17부를 제외한 총 469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선행문헌 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선정하여, 간호학 교수 2인,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2인과의 논의를 거쳐 연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분석 및 신뢰도를 분석한 후, 연구도구를 확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하위 영역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성, 결혼상태, 종교, 부모유형, 학년, 거주지, 주거형태, 군대) 8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성폭력 인식도 10문항, 성적 자기주장성 11문항, 성폭력 경험 22문항(피해경험 11문항, 가해경험 11문항)을 포함하여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Kim (1999)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척도를 Koh (2007)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oh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도구는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되었다.

2) 성적 자기주장성

성적 자기주장성은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자율적인 건강행위로서, 본 연구에서는 Patricia 등(1997)에 의해 개

발되고 표준화된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를 Kim (200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성적 자기주장성 도구는 원치않은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성적 자기주장성, 파트너와의 성교에서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예방적 성적 자기주장성,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성적 자기주장성으로 구성되었다.

3)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성폭력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Sugarman, Aldarondo, & Boney-McCoy, 1996)으로, 본 연구에서는 Sugarman 등(1996)이 개발한 척도를 Nam (2003)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Nam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성폭력 인식도 도구는 경미한 성폭력 인식도와 심각한 성폭력 인식도로 구성되었다.

4)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가, 어느 정도까지를 폭력이라고 인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Nam, 2003)으로, 본 연구에서는 Foo와 Margolin (1995)이 개발한 척도를 Park (200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허용도 도구는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와 언어적·정서적 성폭력 허용도로 구성되었다.

5) 데이트 성폭력 경험

데이트 성폭력 경험은 이성 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 중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성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Sugarman 등(1996)의 The Conflicts Tactics Scale II (CTS II)에 포함된 성폭력 관련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한 Nam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데이트 시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대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데이트 성폭력 경험은 신체적 성폭력 경험과 심리적·언어적 성폭력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도구의 Cronbach's $\alpha = .81$,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도구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측정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ANOVA, Duncan 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고,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 가해경험의 차이 검정은 χ^2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점수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

력 점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학생 48.4%, 여학생 51.6%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미혼이었으며, 58.6%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형태는 친부모인 경우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년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64.6%로 가장 많았고, 주거 형태는 가족과 동거가 43.1%, 기숙사가 33.7%, 자취가 17.3%였으며, 남학생의 57.7%가 군대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 점수를 확인한 결과 남녀간 차이는 없었고,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피해점수가 높아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파트너와 동거 집단이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 피해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데이트 성폭력 가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남녀간 차이가 있었고($p < .001$),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해 점수가 높아 차이가 있었으며($p = .037$), 거주형태에서 파트너와 동거 집단의 가해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부모유형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분석한 결과 고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피해점수가 높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아의 표본수가 2명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able 1.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469)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Sexual violence inflictions experience	
			Mean (SD)	t or χ^2 (p)	Mean (SD)	t or χ^2 (p)
Sex	Male	227 (48.4)	1.35 (0.69)	0.57 (.567)	1.30 (0.65)	4.32 (<.001)
	Female	242 (51.6)	1.32 (0.54)		1.09 (0.29)	
Marital status	Married	15 (3.2)	1.40 (0.59)	0.40 (.684)	1.20 (0.27)	0.07 (.944)
	Unmarried	454 (96.8)	1.34 (0.61)		1.19 (0.52)	
Religion	Yes	194 (41.4)	1.39 (0.69)	1.54 (.124)	1.23 (0.59)	1.30 (.193)
	No	275 (58.6)	1.30 (0.55)		1.16 (0.45)	
Parental type	Biological parents	411 (87.6)	1.34 (0.63) a	1.40 (.242)	1.19 (0.53)	0.06 (.979)
	Step-parents	19 (4.1)	1.32 (0.53) a			
	Single parent	32 (6.8)	1.22 (0.39) a			
	Orphan	2 (0.4)	2.09 (1.41) b			
	Missing data	5 (1.1)				
Grade	Freshman	120 (25.6)	1.21 (0.49) a	6.31 (<.001)	1.13 (0.32) a	2.85 (.037)
	Sophomore	110 (23.5)	1.26 (0.52) a			
	Junior	133 (28.4)	1.37 (0.61) a			
	Senior	106 (22.5)	1.53 (0.77) b			
Residence	Metropolitan city	104 (22.2)	1.33 (0.54)	0.38 (1.19)	1.25 (0.58)	1.19 (.304)
	Small city	303 (64.6)	1.35 (0.63)			
	Rural areas	62 (13.2)	1.28 (0.66)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202 (43.1)	1.34 (0.58) a	4.15 (.001)	1.18 (0.50) a	7.73 (<.001)
	Lodgings	21 (4.5)	1.19 (0.37) a			
	Self-boarding	81 (17.3)	1.46 (0.78) a			
	Dormitory	158 (33.7)	1.27 (0.50) a			
	With partner	4 (0.9)	2.48 (1.78) b			
	Missing data	3 (0.6)				
Military service*	Yes	131 (57.7)	1.39 (0.69)	0.96 (.340)	1.35 (0.72)	1.48 (.139)
	No	96 (42.3)	1.30 (0.67)		1.22 (0.56)	

*sample size = 227, $p < .05$ by Duncan test.

2. 데이트 성폭력 경험의 차이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은 44.5%, 여학생은 55.8%로 여학생이 더 높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9$). 반면,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은 38.3%, 여학생은 24.0%로 남학생이 더 높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차이

남녀 대학생의 성관련 심리적 변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은 평균 2.8, 여학생은 평균 2.2로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세부 요인인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도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 자기주장성은 남학생은 평균 3.5, 여학생은 평균 4.1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원치 않은 성적 자기주장성, 예방적 성적 자기주장성, 원하는 성적 자기주장성이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인식도는 남학생은 평균 3.7, 여학생은 평균 3.9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13$), 경미한 성폭력 인식도와 심각한 성폭력 인식도 모두 여학생이 높았지만 경미한 성폭력 인식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허용도는 남학생은 평균 1.7, 여학생은 평균 1.4로 남학생의 성폭력 허용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1$).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와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와 심각한 성폭력 인식도 모두 여학생이 높았지만 경미한 성폭력 인식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허용도는 남학생은 평균 1.7, 여학생은 평균 1.4로 남학생의 성폭력 허용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1$).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와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성 관련 심리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성과 성폭력 인식도와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r=-.21, r=-.26$), 성폭력 허용도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r=.28$). 성적 자기주장성은 성폭력 인식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r=.49$) 성폭력 허용도와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r=-.36$).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허용도와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r=-.33$).

5. 데이트 성폭력과 성 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상관관계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과 성 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남학생의 경우 성폭력 인식도와 약한 부적 상관성을($r=-.18$), 성폭력 허용도와 약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r=.25$), 여학생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성과 성폭력

Table 2. Differences in Sexual Violence Experiences between Gender (N = 469)

Variables	Male (n = 227)		Female (n = 242)		χ^2	p
	n (%)	n (%)	n (%)	n (%)		
Sexual violence victims	Yes	101 (44.5)	135 (55.8)	5.97	.009	
	No	126 (55.5)	107 (44.2)			
Sexual violence inflictions	Yes	87 (38.3)	58 (24.0)	11.31	.001	
	No	140 (61.7)	184 (76.0)			

Table 4.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N = 469)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X1	X2	X3
X1 Gender role stereotypes	1		
X2 Sexual assertiveness	-.21 (.001)	1	
X3 Sexual assault recognition	-.26 (<.001)	.49 (<.001)	1
X4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28 (<.001)	-.36 (<.001)	-.33 (<.001)

Table 3.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between Gender (N = 469)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Male (n = 227)		Female (n = 242)		t	p
	M (SD)	M (SD)	M (SD)	M (SD)		
Gender role stereotypes	2.8 (0.63)	2.2 (0.61)	10.26	<.001		
Domestic gender role stereotypes	3.0 (0.79)	2.4 (0.74)	9.32	<.001		
Occupational gender role stereotypes	2.7 (0.71)	2.3 (0.78)	6.07	<.001		
Social gender role stereotypes	2.1 (0.84)	1.5 (0.71)	8.29	<.001		
Sexual assertiveness	3.5 (0.66)	4.1 (0.51)	-9.39	<.001		
Unwanted sexual assertiveness	3.6 (0.68)	4.3 (0.59)	-10.28	<.001		
Preventive sexual assertiveness	3.4 (0.80)	3.9 (0.69)	-7.50	<.001		
Wanted sexual assertiveness	3.6 (0.82)	3.9 (0.69)	-4.88	<.001		
Sexual assault recognition	3.7 (0.80)	3.9 (0.69)	-2.48	.013		
Mild sexual assault recognition	3.8 (0.83)	4.0 (0.74)	-2.52	.012		
Severe sexual assault recognition	3.4 (0.91)	3.6 (0.75)	-1.85	.066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1.7 (0.73)	1.4 (0.47)	5.43	<.001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1.6 (0.76)	1.2 (0.47)	6.20	<.00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2.0 (0.79)	1.8 (0.65)	2.74	.006		

Table 5. Relationships among Sexual Violence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by Gender (N = 469)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sexual issues	Sexual violence experiences	Male (n = 227)		Female (n = 242)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Sexual violence inflictions experienc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Sexual violence inflictions experience
		r (p)	r (p)	r (p)	r (p)
Gender role stereotypes		.08 (.255)	.16 (.014)	.10 (.115)	.04 (.507)
Sexual assertiveness		-.03 (.640)	-.10 (.122)	-.18 (.005)	-.26 (< .001)
Sexual assault recognition		-.18 (.006)	-.23 (.001)	-.23 (< .001)	-.22 (.001)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25 (< .001)	.27 (< .001)	.30 (< .001)	.45 (< .001)

력 인식도와는 약한 부적 상관성을($r = -.18, r = -.23$), 성폭력 허용도와는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r = .30$). 데이트 성폭력 가해는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와 약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고($r = .16, r = .27$), 성폭력 인식도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r = -.23$), 여학생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와는 약한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r = -.26, r = -.22$), 성폭력 허용도와는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r = .45$).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남녀 대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한 결과 성폭력 피해 점수(5점 만점)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 경험(유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데이트 성폭력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ack, 2006; Chae & Jung, 2004; Jang & Cho, 2001)도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성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Kim & Kim, 1999; Lee & Kang, 2010) 있어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데이트 성폭력 가해의 경우 평균점수와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가해를 더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른 선행연구들(Back, 2006; Kang & Lee, 2010; Lee, 2007; Nam, 2003)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가해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Jang & Cho, 2001; Kim & Kim, 1999; O'Keeffe, 1997)도 있기 때문에 연구들 간의 상반된 결과는 어떤 성이 데이트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불분명하게 한다. 데이트 성폭력에서 남성들의 폭력이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폭력은 상대방의 공격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O'Keeffe, 1997)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폭력과 자기 방어

적 차원에서 사용한 폭력은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Ahn, 2006).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들이 서로 비교가능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데이트 성폭력의 측정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필요하고(Ahn, 2006),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이 피해자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라는 의식의 개선과 더불어 양성평등 교육과 함께 이성교제 폭력 피해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성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피해 및 가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데이트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Kang & Lee, 2010; Nam, 2003)와 일맥상통하였다. 부모유형에서는 고아(2명)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에서는 동거 집단(4명)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후 표본수를 늘려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전반적 성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로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를 확인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왜곡된 성규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eendlinger & Byrne, 1987). 본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Koh, 2007; Lee & Lee, 2005; Oh et al., 2010; Shim et al., 2012)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전통적인 남성

의 역할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피해 여성의 폭력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관한 연구(Han, 2012)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전가와 여성의 탓이라는 정당화에서 낮은 신념을 보여 여성의 폭력에 대한 수용이 폭력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 뿐 아니라 실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성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개인적 능력으로,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의 예방에 효과적이고(Patricia et al., 1997; Vaughn, Rupal, & Constance, 2002),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있는 주요 변인이다(Lee & Lee, 2005).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율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Kim, Kang, & Jeong, 2012)를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성적 자기주장성 연구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보호요인으로 써 실시되었기 때문에(Park & Song, 2012; Patricia et al., 1997; Vaughn et al., 2002) 남녀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성의 차이와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행동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Lee & Kang, 2010),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지식의 강화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시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성역할 관련 변수중 성폭력 인식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Nam, 2003; Shim et al., 2012)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남성이 이성 교제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행동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Lee & Lee, 2005), 특히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생의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Koh, 2007). 따라서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허용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성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Jang & Cho, 2001; Jang & Lee, 2011)을 지지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과 Cho (2001)의 연구에서 '폭력 허용도'의 경우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성적 폭

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성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는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연관되어 있고(Kang & Lee, 2010; Lee & Kang, 2010)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는 성적 자기주장성 및 성폭력 인식도와 부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적 자기주장성은 성폭력인식도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가 낮고,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Shim 등(2012)의 연구나 성폭력 인식도와 성적 자기주장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와 Lee (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트 성폭력 경험과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에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나(Jang & Cho, 2001; Lee & Kang, 2010), 이성교제 상황에서 낮은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Lee & Lee,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써 성적 자기주장성이 확인되었고, 남학생의 경우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된 변수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인되었다. 성적 주장성은 성피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성폭력 증가와 관련이 있고(Lee & Kang, 2010; Lee & Lee, 2005; Patricia et al., 1997; Yoo & Park, 2004), 성적 자기주장력이 부족한 여성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ughn et al., 2002).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연관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Greendlinger & Byrne, 1987). 따라서 남녀 성차를 감안하여 여학생에게는 성적 자기주장성을 강화시키고, 남학생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데이트 성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와 같은 성관련 심리적 변수를 탐색하고 데이트 성폭력 경험을 측정하여 잠재적 가해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 청소년 및 청년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차를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 고취, 성

적 자기주장 훈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된 성폭력 예방 및 성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청소년 및 직장인으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학생 이외의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성관련 심리적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데이트 성폭력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성폭력 경험의 내용과 정도를 세분화한 타당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관련 심리적 변수와 데이트 성폭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성차에 따라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등 성관련 심리적 변수와 데이트 성폭력 경험에 차이가 있었고, 데이트 성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데이트 성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G. Y. R. (2006). Research review about psycho-social risk marke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709-726.
- Back, J. H. (2006). *The differences of date violence experience b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date related variables,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Chae, P., & Jung, M. C. (2004). A study about the sexual attitudes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869-886.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Greendlinger, L. A.,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ales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23*, 1-11.
- Han, Y. R. (2012).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in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dwelling in th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532-546.
- Jang, H. S., & Cho, H. G. (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97-204.
- Jang, S. H., & Lee, S. H. (2011).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4), 395-406.
- Kang, H. S. & Lee, E. S. (2010). Factors influencing the perpetrations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3), 75-84.
- Kim, D. I. (1999). Gender stereotypes of Korean. *Sociology of gender*. Seoul: Muneumsa.
- Kim, J. R., & Kim, K. S. (1999).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37*(8), 73-90.
- Kim, K. W., Kang, K. H., & Jeong, G. H.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 Kim, Y. J. (2006). *The effect of sexual decision-making ability and sexual attitude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Koh, H. (2007).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E. S., & Kang, H. S. (2010).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while dating as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3), 266-275.
- Lee, J. H. (2007). *Psychological symptoms of date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2), 419-436.
- Luthra, R.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http://dx.doi.org/10.1177/0886260506287312>
- Nam, H. M. (2003).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Oh, S. H., Kang, H. S., & Kim, Y. H. (2010).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2), 249-257.
- O'Keef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Park, M. R. (2007).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attitudes, impulsivity,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Park, S. M., & Song, W. Y. (2012).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265-280.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Ryu, C. S. (2006). SPSS 14.0 for windows (5th ed.). Seoul: Elite.
- Shim, C. S., Lee, Y. S., & Oh, S. H. (201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2), 117-125.
- Silverman, J. G. (2001). Dating violence against adolescent girls and associated substance use, unhealthy weight control, sexual risk behavior, pregnancy, and suicidalit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6*(6), 572-579.
- Sohn, A., & Chun, S. (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73-100.
- Sugarman, D. B., Aldarondo, E., & Boney-McCoy, S.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313-337.
- Suh, K. H. (2011).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n, Mongolian, Filipino, and Russian samp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219-244.
- Vaughn, I. R., Rupal, S., & Constance, M. W.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Yoo, O. S., & Park, K. (2004).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16(4), 793-812.